胃의 생리특성 및 胃氣와 眞藏脈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이혜연 · 강정수*

Study on Physiological Character of Stomach, and Correlation of Stomach Qi(胃氣) and True Visceral Pulse(眞藏脈)

Department of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Lee Hye-yeon · Kang Jungsoo*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ological character of stomach and true viscera pulse(眞臟脈) with『Huangdinejing(黃帝內經)』, the study shows these fallowing results.

Stomach is not only one of the six bowels(六腑), it represents them. It is called as yang brightness of foot(足陽明) because it has relation with function of earth among five phases(五行), great storage(倉廩) and root of five visceras and six bowels(五臟六腑), has close relationship with triple energizers(三焦).

Stomach is an important organ that feeds acquired qi(後天之氣) based on food and stomach qi (胃氣) which is a transformed form by going through digestion, is significant for life conservation.

In human body, the activation of stomach qi can be known by pulse. The true viscera pulse is a pulse which predicts the period of death. If stomach qi exsits, viscera qi can be led to greater yin of hand(手太陰), however, when it does not exist, five viscera qi can not be led to greater yin of hand and this kind of situation appears the true viscera pulse. Hence, by knowing the relation between stomach qi and five viscera qi, the condition of normality, disease, and death can be known.

In『Hwangdineijing』it says, stomach qi, shortly string like pulse(微弦), shortly surging pulse(微鉤), shortly floating pulse(微毛), and shortly sunken pulse(微毛) shown in four seasons are normal pulse. And also it emphasizes, normal pulse is made when four seasons, five viscera pulse, and stomach qi are in harmony.

In conclusion, stomach qi is based on food for well being, and a standard of judging people whether they are living in a healthy life or not.

key words : stomach qi, true viscera pulse, yang brightness of foot, triple energizers, acquired qi.

* 교신저자 : 강정수. 대전시 동구 용운동 96-3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E-mail : omdkjs@dju.kr Tel : 042-280-2617.

접수일(2011년 7월 3일), 수정일(2011년 7월 3일),
게재확정일(2011년 7월19일)

Ⅰ. 서 론

사람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먹어야만 생명을 유지한다. 『黃帝內經』에서 사람은 水穀으로 근본을 삼으므로 水穀을 絶하면 죽으며[1], 平人이 7일동안 마시고 먹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은 水穀精氣津液이 모두 다하였기 때문이다[2] 라고 하여, 사람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水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水穀이 체내에 들어가면 胃로 소화과정이 시작되므로, 胃는 後天之氣를 기르는 중요한 기관이 되며, 胃에 들어간 水穀이 소화과정을 거쳐서 인체에 필요한 형태로 변화한 胃氣는 생명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바탕이 된다. 때문에 『素問 · 平人氣象論』에서는 平人의 常氣는 胃에서 품하므로 胃는 平人의 常氣이다. 사람이 胃氣가 없는 것을 逆이라 하고, 逆한 者는 죽는다[3]고 하였다.

胃氣는 脈을 구성하는 胃·神·根 중의 하나이므로, 脈診을 할 때 脈에 胃氣가 있는지, 胃氣가 五臟之氣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 脈에 胃氣가 없이 眞藏만이 나타나는 것을 眞藏脈이라고 하고, 眞藏脈의 有無를 통해서 生死를 구분할 수 있으니, 진단에 있어서 胃氣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脈은 '血之府'이며, 脈診은 脈動의 '常'과 '變'에 근거하여 내부 臟腑氣血과 生氣之源의 상태를 파악하고 인체가 천지자연과 상응하는지 여부를 알아내는 진단 방법이다[4]. 따라서 脈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으로 알 수 없는 인체 내부 상태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진단 근거가 되므로, 단순히 脈象만을 取할 것이 아니라 脈과 함께 인체 생리 전반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黃帝內經』을 중심으로 胃의 특성과, 삶을 지속하기 위한 근본 요소이며 診脈時에 生死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胃氣의 모습과 역할, 그리고 胃氣와 眞藏脈의 상관관계를 생리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및 고찰

1. 胃의 생리 특성

1) 六府·胃의 역할

선현들은 장부를 구분함에 있어서 臟과 腑라는 이론적 개념을 가지고 구체적인 현상을 모두 장부와 연관지어 관찰함과 동시에 해부학적인 관찰도 병행하여 臟과 腑의 기능과 성질 그리고 형태와 부위에 따라 그 특징을 개괄하고 있다[5].

「五藏別論」에 "무릇 胃·大腸·小腸·三焦·膀胱 이렇게 다섯은 天氣之所生이며, 그 氣는 天을 본뜨므로 瀉하지만 藏하지는 않는다. 이것들은 五藏 濁氣를 받으며, 傳化之府라고 이름하는데, 이는 오래 머물러 두지 못하고, 輸하고 瀉하기 때문이다. … 六府라는 것은 物을 傳하여 化하지만 藏하지 않으므로 實하지만 滿할 수 없다. 그러한 이유는 水穀이 口에 들어가면 胃는 實하지만 腸이 虛하고, 먹은 것이 아래로 내려가면 腸은 實하지만 胃는 虛하다. 그래서 實하지만 滿하지 않고, 滿하지만 實하지 않는 것이다."[6] 라고 하였고, 「經水」에서는 "六腑는 穀을 받아서 行하고 氣를 받아서 揚한다."[7]라고 하였으며, 「衛氣」에서는 "六腑는 水穀을 받아서 物을 化하여 行하는 것이다."[8]라고 하여 六腑는 水穀을 化하고

1)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66. "人以水穀爲本 故人絶水穀則死"
2)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172. "平人不飮食七日而死者 水穀精氣津液皆盡故也"
3)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65. "平人之常氣稟於胃 胃者 平人之常氣也 人無胃氣曰逆 逆者死"
4) 이혜연. 『黃帝內經』의 脈에 대한 연구 -四時脈, 寸口人迎脈, 眞臟脈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p.87.
5) 전국한의과대학 생리학 교수 편저. 東醫生理學. 서울. 集文堂. 2008. pp.188-189.
6)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42. "夫胃大腸小腸三焦膀胱 此五者 天氣之所生也 其氣象天 故瀉而不藏 此受五藏濁氣 名曰傳化之府 此不能久留 輸瀉者也 … 六府者 傳化物而不藏 故實而不能滿也 所以然者 水穀入口則胃實而腸虛 食下則腸實而胃虛 故曰 實而不滿 滿而不實也"
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99. "六腑者 受穀而行之 受氣而揚之"

行하는 것을 담당한다고 하였다.

六腑 중에서도 胃는 다른 臟器들보다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胃는 음식을 첫 번째로 受納하는 구조이므로 六府 중에서 제일 높은 위치에 앉아 있고, 胃에 연결해서 小腸, 大腸, 廣腸(肛門·魄門), 膀胱의 차례로 上에서 下로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으며[9], 大腸·小腸은 모두 胃에 속해 있다[10]. 때문에 胃는 六腑 중의 하나이면서도 水穀과의 관계에 있어 六腑를 포괄하고 있어서 "胃는 水穀之海이고, 六腑의 大源"[11]이 되는 것이다.

2) 足陽明

胃를 足陽明이라 하고, 五行 중에서 土로 호칭한다. 그 이유에 대하여 宋[12]은 "胃가 藏府의 倉庫로 음식을 口를 통해 受納해서 胃에 저장시켜서 脾의 造化로 氣血로 분리해서, 輕淸한 것은 氣의 분야로 輸送되고 重濁한 것은 血의 藏府로 들어가서 生을 영위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을 추리해 보면 五味는 土에서 生하고 土는 五味를 培養하기 위해서 熱과 濕氣와 津液을 공급하게 되며, 계절 중에서 熱이 가장 많고 津液이 풍부하게 釀成되는 달은 오직 五月뿐이므로 陽明이 五月에 해당되고, 藏府에서는 胃가 土와 동일한 작용으로 藏府에 五味를 공급하기 때문에 胃를 足陽明이라 한다."라고 하였고, 또한 "足陽明經은 胃에 배속되어서 多血하니, 胃主血로 모든 水穀이 陰에 속하고, 陰은 火가 아니면 消化를 시키지 못하므로, 胃의 작용은 陽明이 되는 것이니, 胃는 中央에 있어서 土에 속하고 陽明은 午에 속하고 午는 天의 中央이며, 一年의 中央이다. 午月의 기후가 太陰濕土 이전이므로 大熱임을 연상시켜서 陽明이 두개의 陽 틈에 끼어서 大熱을 發하게 되고, 胃는 一邊에서는 小腸과 연결하고 一邊에서는 三焦가 유동해서 熱을 쉴 사이 없이 받게 된다. 그러나 足陽明이라 함은 胃 자체가 足陽明이 아니라 胃를 지배하는 經脈이 足陽明인 것이고, 胃 자체는 濕하지도 熱하지도 않으며 足陽明의 활동이 濕도 發하고 熱도 發해서 胃에게 注入해서 胃의 활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근본 胃는 本이고 足陽明은 標이니 標가 本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사실이나, 胃는 有形이고 足陽明은 無形이므로 有形이 無形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고 하였다[13].

한편『靈樞·動腧』[14]에서 手太陰·足太陰·陽明이 홀로 쉼없이 움직이는 것은 胃脈 때문이며, 특히 足陽明이 움직이는 것은 胃氣의 悍氣가 머리를 상충하여 咽眼系를 循하고 腦로 들어갔다가 턱으로 나와 牙車를 循하고 陽明과 합하고 人迎과 병행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胃는 有形之府이고 有形之府는 血을 주관하므로 動 중에 靜이 있는데 靜하면 조화를 生하지 못하고, 胃는 無形之府로 인해서 조화를 生하게 된다. 三焦는 無形之府이므로 三焦를 타고 動하기 때문에 胃가 動하는 것은 三焦가 動하는 것이지 胃 자체가 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실제로 胃의 역할은 無形인 足陽明 또는 三焦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3) 倉廩

五味는 맨처음 口에 入하고 그 다음에 胃에 藏한 다음, 五臟六腑와 四肢 등 몸의 곳곳으로 行하여[15][16][17][18][19][20][21][22][23][24][25][26] 사람의 生을 지속

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236. "六腑者 所以受水穀而化行物者也"
9) 宋点植 撰. 醫學輯要. 서울. 曉林. 1994. p.208.
1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21. "大腸小腸 皆屬於胃"
1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42. "胃者水穀之海 六腑之大源也"
12) 宋点植 撰. 醫學輯要. 서울. 曉林. 1994. p.210.
13) 宋点植 撰. 醫學輯要. 서울. 曉林. 1994. p.113.
1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267. "黃帝曰 經脈十二 而手太陰足少陰陽明 獨動不休 何也 岐伯曰 是明胃脈也… 黃帝曰 足之陽明何因而動 岐伯曰 胃氣上注於肺 其悍氣上衝頭者 循咽 上走空竅 循眼系 入絡腦 出頗 下客主人 循牙車 合陽明 幷下人迎 此胃氣別走於陽明者也 故陰陽上下 其動也若一"
15)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36. "五味入口 藏於腸胃 味有所藏 以養五氣 氣和而生 津液相成 神乃自生"
16)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42. "五味入口 藏於胃以養五藏氣"
17)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86. "食氣入胃 散精於肝 淫氣於筋 食氣入胃 濁氣歸心 淫精於脈 … 飮入於胃 遊溢精氣 上輸於脾"

시킨다. 이와 같이 몸 안으로 들어온 五味를 藏하였다가 필요한 곳으로 다시 보내는 모습을 『素問·靈蘭秘典論』에서는 "脾胃者 倉廩之官 五味出焉"[27]이라 하였고, 『素問·六節藏象論』에서 "脾胃大腸小腸三焦膀胱者 倉廩之本 營之居也"[28]라고 하였고, 『醫學入門』에서는 胃號太倉[29]이라 하였다.

『荀子·富國篇』 楊倞注에서 穀을 저장하는 것을 '倉'이라 하고, 米를 저장하는 것을 廩이라고 하며[30], 宋[31]은 穀物을 저장하는 건물을 '倉'이라 하고 金錢寶貨를 저장하는 건물을 '庫'라 하며, 倉 중에 큰 것을 '廩'이라 하고, 창고 중에서 가장 커서 곡물은 무엇이든지 저장할 수 있는 건물을 '太倉'이라 하며, 太는 大와 동일하게 사용된다고 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倉廩은 곡식이 들고 나가는 창고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창고는 철마다 나오는 穀과 米를 수확을 하면 그것을 저장해 놓았다가 필요할 때마다 내어다 먹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며,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안주인이 곳간 열쇠를 넘겨주는 것은 살림을 모두 맡기는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것을 보아도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바로 胃가 이러한 창고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섭취하는 모든 음식물을 胃에 저장해 필요한 성분으로 변화시킨 뒤 각기 적합한 곳으로 보내준다[32].

4) 五臟六腑의 근본

『黃帝內經』에서는 胃를 몸 안으로 들어온 五味를 藏하였다가 필요한 곳으로 다시 보내는 모습이 큰 창고와 같아서 倉廩이라고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五味가 胃에 모였다가 각기 좋아하는 臟腑로 走하고 그로써 五臟六腑가 지속적으로 활동하게 하는 後天之本의 역할을 하므로, '五臟六腑之海'[33][34][35], '水穀之海'[36] 또는 '五臟之本'[37]이라고도 표현하였다.

'海' 字는 『說文解字』에 "海 天池也 以納百川者"라 하였고, 『淮南子』에서는 "百川異源 而皆歸於海"라고 하여, 온갖 물길을 다 받아들이는 존재로 원래 '큰 호수'의 뜻이었으나, 이후 大海의 의미가 생겼고, 다시 人山人海나 雲海와 같이 '많음'을 뜻하게 되었다. 甲骨文에 나타난 海는 물을 뜻하는 '水'와 '每'가 결합된 글자인데, '每'는 고대 씨족사회에서의 최고령으로 자손을 가장 많이 낳아 기른 여성을 의미하는 글자였으니, 水와의 결합은 육지의 모든 江과 河川이 흘러 들어가는 海가 어머니와 같이 모든 것을 용납하고 포용하는 존재로 인식되었음을 뜻한다. 『靈樞·

18)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12. "四支皆稟氣於胃"
19)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76. "夫五味入口 藏於胃"
20)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79. "穀入於胃 脈道以通 血氣乃行"
21)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13. "穀入於胃 乃傳之肺 流溢於中 布散於外"
22)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19. "人受氣於穀 穀入於胃"
23)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46. "胃者 五藏六府之海也 水穀皆入於胃 五藏六府皆稟氣於胃 … 穀始入於胃"
24)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61. "人之所受氣者 穀也 穀之所注者 胃也 胃者水穀氣血之海也"
25)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70. "酸入於胃 其氣澀以收 … 鹹入於胃 其氣上走中焦 … 辛入於胃 其氣走於上焦 … 苦入於胃 五穀之氣皆不能勝苦 苦入下脘 … 甘入於胃"
26)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98. "五穀入於胃也 其糟粕津液宗氣 分爲三隧"
27)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34.
28)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p.36-37.
29) 李梴. 編註醫學入門.1. 연합의서. 서울. 1992. p.330.
30) 鄭鉉錫, 朴贊國. 脾者後天之本에 관한 考察(오행이론을 중심으로).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1999. 12(1). p.216.
31) 宋点植 撰. 醫學輯要. 서울. 曉林. 1994. p.197.
32) 鄭鉉錫, 朴贊國. 脾者後天之本에 관한 考察(오행이론을 중심으로).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1999. 12(1). p.216.
3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46. "胃者 五臟六腑之海也 水穀皆入於胃 五臟六腑皆稟氣於胃"
3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67. "胃爲五臟六腑之海"
3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00. "足陽明 五藏六府之海也"
3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74. "人有髓海 有血海 有氣海 有水穀之海 … 胃者水穀之海"
3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75. "五臟者 皆稟氣於胃 胃者五臟之本也"

玉版』에서는 “海가 雲氣를 行하는 곳이 天下다.”[38] 라고 하여 水가 모여 이룬 海가 다시 구름을 이루어 땅위 구석구석을 行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海’에 대한 여러 풀이들은 입으로 들어온 水穀이 胃에 藏하고 消化 과정을 거쳐서 氣血津液精 등의 형태로 五臟六腑와 四肢 末端까지 펼쳐지는 모습과 관련이 있다.

한편 五味는 『素問 · 六節藏象論』의 “地食人以五味”[39]라는 구절로 보아 땅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을 말하는데, 이것들은 五行의 속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素問 · 陰陽應象大論』에서 五味가 五藏을 生하는 기전[40]과 胃에 들어가 각각 좋아하는 곳으로 走하는 것[41][42]으로 볼 때, 각각의 味는 五行屬性에 따라 歸屬되어 각 臟이 부여받은 각자의 고유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胃를 五臟六腑之海 · 水穀之海 · 五臟之本라 한 것은 五臟六腑 中 가장 넓은 공간을 형성하여 飮食을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는 상태로 전환시키고, 각 臟腑로 영양을 공급하여 사람이 태어나 활동을 지속하는 後天的 생명 유지의 근본이 됨을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2. 胃氣의 생성 및 營·衛氣와의 관계

인체에서 생명활동의 근본이 되는 氣는 그 유래, 분포 및 기능에 따라 여러 이름으로 불리지만, 일반적으로는 크게 先天之氣와 後天之氣로 구분된다. 先天之氣는 부모로부터 받아 생명의 원동력이 되는 元氣를 말하며, 後天之氣는 음식물의 精微로부터 형성된 穀氣인 營氣·衛氣를 말한다[43].

『靈樞·經脈』에 “사람이 처음 生함에 먼저 精을 이루고 精이 이루어지면 腦髓를 生하며, 骨을 幹이 되고 脈은 營이 되고 筋은 剛이 되고 肉은 牆이 되는데 皮膚가 단단해지면 毛髮이 자란다. 穀이 胃에 들어가 脈道가 通함으로써 血氣가 이에 行한다.”[44]고 하여 父母의 精을 받아 태어난 이후로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穀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였다. 또한 『靈樞·平人絶穀』에서는 腸胃의 大·徑·長·受穀의 量 등의 數를 말하고 난 뒤, “氣가 上下하고 五臟이 安定되고 血脈이 和利하면 精神이 이에 居하는데, 神이라는 것은 水穀의 精氣다.”[45]라고 하였고, 이어서 “腸胃의 가운데에는 마땅히 穀 2斗와 水 1斗 5升이 머물러 있는데, 平人은 날마다 두 번 後하고 後는 2升半으로 하루 중에는 5升을 便으로 내보내니, 7日이면 3斗5升으로 머물러 있던 水穀이 완전히 소진된다. 그러므로 平人이 飮食을 먹지 않은지 7日이면 죽는 것은 水穀精氣津液이 모두 다하였기 때문이다.”[46]고 하여 神은 水穀의 精氣이며, 腸胃에 머물러 있는 水穀精氣津液의 근본은 사람이 먹은 水穀이라고 하였다. 또한 『靈樞·決氣』에서는 精·氣·津·液·血·脈의 六氣는 一氣가 될 뿐이나 각각 部에 있는 것을 主하는 것이라면서, 모두 五穀과 胃가 大海가 된다[47] 라고 하였다. ‘氣’ 字의 語源에 대한 설명은

3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261. “海之所行雲氣者 天下也”
39)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36.
40)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23. “酸生肝 … 苦生心 … 甘生脾… 辛生肺 … 鹹生腎”
41)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305. “夫五味入胃 各歸所喜攻 酸先入肝 苦先入心 甘先入脾 辛先入肺 鹹先入腎 久而增氣 物化之常也”
42)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246. “五味各走其所喜 穀味酸 先走肝 穀味苦 先走心 穀味甘 先走脾 穀味辛 先走肺 穀味鹹 先走腎”
43) 전국한의과대학 생리학 교수 편저. 東醫生理學. 서울. 集文堂. 2008. p.140.
44)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79. “人始生 先成精 精成而腦髓生 骨爲幹 脈爲營 筋爲剛 肉爲牆 皮膚堅而毛髮長 穀入於胃 脈道以通 血氣乃行”
4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172. “氣得上下 五臟安定 血脈和利 精神乃居 故神者 水穀之精氣也”
4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172. “腸胃之中 當留穀二斗 水一斗五升 故平人日再後 後二升半 一日中五升 七日五七三斗五升 而留水穀盡矣 故平人不飮食七日而死者 水穀精氣津液皆盡故也”
47)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165. “人有精氣津液血脈 余意以爲一氣耳 … 兩神相搏 合而成形 常先身生 是謂精 … 上焦開發 宣五穀味 熏膚充身澤毛 若霧露之溉 是謂氣 … 腠理發泄 汗出溱溱 是謂津 … 穀入氣滿 淖澤注於骨 骨屬屈伸 洩澤補益腦髓 皮膚潤澤 是謂液 … 中焦受氣 取汁變化而赤 是謂血 … 壅遏營氣 令無所避 是謂脈 … 六氣者 各有部主也 其貴賤善

여러 가지가 있다. 一說로 구름이라는 뜻으로, 그 실체는 땅에서 올라가 작은 물방울들이 굴러다니기 때문에 떠도는 모양을 그대로 본떠 '气'라 했는데, 그러다가 하늘에 떠도는 그 작은 물방울들은 곧 따뜻한 밥에서 무럭무럭 오른 김일 따름이라는 점을 깨닫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气'에 밥을 뜻하는 '米'를 덧붙여 '氣'라 쓰기에 이르렀다고 하였고, 다른 說로는 쌀을 솥에 넣어서 밥을 짓는 과정에 솥뚜껑이 들썩거리는 것을 보고 만든 글자라 하였다. 『說文解字』를 지은 後漢의 許愼의 해석을 보면, 氣는 芻米로 풀이하고 있는데, 芻米란 손님에게 드리기 위해 밥을 찌는 것으로 이때 수증기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 氣의 語源이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氣는 단순한 수증기에서 머물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근원적 에너지'라는 뜻으로 정착하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사람의 삶은 氣의 모임이다. 모인 즉 삶이 되고, 흩어진 즉 죽음이 된다."[48]는 구절 또한 '氣'를 생명의 실상으로 봄을 뜻한다. 『東醫寶鑑』에서는 "매일 먹는 음식의 精熟한 것이 氣를 더하는데, 이러한 '氣'는 穀에서 生하므로 '气'와 '米'로부터 字形을 取하였다."[49]는 『金丹正理大全』의 글의 인용하여 氣의 뜻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은 입을 통해 들어간 穀이 消化되면서 蒸化한 氣가 사람의 생명을 이끌어 나감을 말하고 있다.

『內經』에서 사람이 어떻게 氣를 받는지에 대하여 「營衛生會」에서 "사람은 穀에서 氣를 받는다. 穀이 胃에 入하면 肺에 더불어 傳하여 五臟六腑가 모두 氣를 받는다. 그 淸한 것은 營이 되고 濁한 것은 衛가 되며, 營은 脈中에 있고 衛는 脈外에 있다."[50]라고 하였고, 「邪客」에 "五穀이 胃에 들어가서 五穀은 糟粕·津液·宗氣로 나누어져 三隧가 된다. 그러므로 宗氣는 胸中에 쌓여 있다가 喉嚨에서 나와서 心脈을 貫하여서 呼吸을 行하게 한다. 營氣란 것은 그 津液을 泌해서 脈에 注해서 化하여 血이 되게 해서 四末을 영화롭게 하고, 안으로 五臟六腑를 注하여서 刻數에 應하게 한다. 衛氣란 것은 그 悍氣의 慓疾한 것이 나와서 먼저 四末의 分肉·皮膚之間에서 行하는데 쉼이 없는 것이다."[51]고 하였으며, 「痺論」에서 "榮이라는 것은 水穀의 精氣로, 五臟에서 和調하고 六腑에서 灑陳하여 이에 능히 脈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脈을 좇아 上下하고 五臟을 貫하며 六腑를 絡한다. 衛라는 것은 水穀의 悍氣이다. 그 氣은 慓疾滑利하여 脈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皮膚之中과 分肉之間을 좇아 따르다가 肓膜에서 熏하고 胸腹에서 흩어진다."[52]고 하여 榮과 衛 모두 水穀의 氣라 하였고, 『靈樞·營氣』에 "營氣의 道는 內穀이 寶가 된다."[53]고 하여, 인체를 行하는 氣를 營氣와 衛氣로 설명하고, 營氣와 衛氣는 水穀으로부터 生한다고 하였다.

營衛가 行하는 바는 어떠한 道를 따라 오는지에 대하여 「營衛生會」에 "營은 中焦에서 나오고 衛는 下焦에서 나온다. … 上焦는 胃上口에서 나와서 咽과 나란히 위로 올라가 膈을 貫하고서 胸中에 퍼진다. … 中焦는 또한 胃中과 함께 나란히 하여 上焦의 後에서 나오니, 이 받은 바의 氣로 糟粕을 泌하고 津液을 蒸하여 그 精微를 化하여 肺脈에 上注하면 이에 化하여 血이 되어서 身을 奉生함에 이보다 貴함이 없다. 그러므로 오직 經隧에서 行을 얻으니, 營氣라 命한다. … 下焦는 廻腸에서 나뉘어서 膀胱에서 注하여 滲入한다. 그러므로 水穀은 항상 胃中에서 함께 居하다가 糟粕을 이루어 함께 大腸에 下하여서

惡 可爲常主 然五谷與胃爲大海也"

48) 莊周. 莊子. 서울. 연암서가. 2010. p.520. "人之生 氣之聚也 聚則爲生 散則爲死"

49) 許浚. 神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7. p.245.

50)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119. "人受氣於穀 穀入於胃 以傳與肺 五藏六府皆以受氣 其淸者爲營 濁者爲衛 營在脈中 衛在脈外"

5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298. "五穀入於胃也 其糟粕津液宗氣 分爲三隧故宗氣積於胸中 出於喉嚨 以貫心脈 而行呼吸焉 營氣者泌其津液 注之於脈 化以爲血 以榮四末 內注五臟六腑 以應刻數焉 衛氣者 出其悍氣之慓疾 而先行於四末分肉皮膚之間 而不休者也"

5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163. "榮者水穀之精氣也 和調於五臟 灑陳於六腑 乃能入於脈也 故循脈上下貫五臟 絡六腑也 衛者水穀之悍氣也 其氣慓疾滑利 不能入於脈也 故循皮膚之中 分肉之間 熏於肓膜 散於胸腹"

53)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113. "營氣之道 內穀爲寶"

下焦를 이루고 滲하여 함께 下하고, 汁을 濟하고 泌하고 나누어서 下焦를 좇아서 膀胱에 滲入한다."[54]고 하여 營·衛의 行은 三焦와 관련이 있으며, 三焦는 胃에서 받은 水穀이 氣로 化하고 行하는 모습과 밀접함을 말하였다. 또한 營衛의 行에 대하여 『靈樞·五味』에서 "水穀이 처음 胃에 들어가면 그 精微는 먼저 胃의 兩焦에서 나와서 五臟을 溉하고, 별도로 두 行으로 出함이 營衛의 道이다. 그 大氣의 搏하면서 不行하는 것은 胸中에 쌓이니 '氣海'라고 命하는데, 肺에서 나와서 喉와 咽을 좇으므로 숨을 내쉬면 나오고 숨을 들이마시면 들어간다. 天地의 精氣는 그 大數가 항상 3이 나오고 1이 들어가므로, 穀이 들어가지 않은지 半日이면 氣가 衰하고 一日이면 氣가 少하게 된다."[55]고 하여 營衛의 行은 맨 처음 胃에서 나오고, 天地의 大數는 나오는 것이 들어가는 것보다 많으므로 穀을 들어가지 않으면 氣가 衰해지고 少해진다고 하였으니, 체내에서 氣를 出하게 하는 근본은 胃로 들어온 穀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요약해 보면 氣는 그 語源에서부터 穀과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人體의 氣는 水穀이 처음 들어오는 胃로부터 시작되며, 水穀을 絶하면 氣가 근본 삼을 곳이 없어서 죽게 된다. 그러므로 氣·水穀·胃는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서 사람의 生을 유지시키는 요소들이다. 사람은 飮食으로 生하고 飮食으로 死하므로 胃는 生死의 근본이 되며, 生死는 氣血에 있으므로 胃는 또한 氣血의 근본이 된다[56].

2. 眞藏脈

1) 眞藏의 개념

眞藏脈은 五臟의 眞氣가 衰亡한 脈象으로, 五臟의 病이 위험한 단계에 達하면 해당 장부의 精氣가 衰微하고 胃氣가 絶滅 直前이 되기 때문에 특수한 脈象이 나타나는데, 정상적인 脈象에 있는 胃·神·根이 없고 침착하여 이 脈象에서는 온화한 象을 볼 수 없는 것을 말한다[57].

『素問·平人氣象論』에 "平人의 常氣는 胃에서 품한다. … 이른바 胃氣가 없다는 것은 다만 眞藏脈만을 얻고 胃氣를 얻지 못함이다."[58]고 하였고, 『素問·陰陽別論』인데, "脈에는 陰陽이 있다. 陽을 아는 者는 陰을 알고, 陰을 아는 者는 陽을 안다. 무릇 陽에는 다섯이 있는데 5의 5로 25陽이다. 이른바 陰이라는 것은 眞臟인데, 드러나면 敗하게 되고 敗하면 반드시 死한다. 이른바 陽이라는 것은 胃脘의 陽이다. 陽에서 떨어진 것으로 病處를 알고, 陰에서 떨어진 것으로 死生의 期를 안다."[59]고 하였다. 이 또한 眞臟과 胃脘의 陽이 脈의 陰과 陽으로써 서로 떨어져서는 안 됨을 말한다. 따라서 眞藏은 脈에 胃氣없이 五臟 본연의 脈象만 드러난 것을 말한다.

眞藏이라는 字意에 대하여, 楊上善은 "나머지 것들과 서로 섞임이 없기 때문에 眞이라 名한다. 五臟之氣는 모두 胃氣와 和하지, 獨用하지 않는다. 至剛이 獨用하지 않는 것과 같으니, 獨用하면 부러지고 和柔를 쓰면 단단해지기 때문이다."[60]라고 하여 다른 것과 섞이지 못하고 獨用하여 단단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하였다. 鄭등[61]은 "우리가 귀금속이나 貴한 물건을

54)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p.119-120. "黃帝曰 願聞營衛之所行 皆何道從來 岐伯答曰 營出於中焦 衛出於下焦 黃帝曰 願聞三焦之所出 岐伯答曰 上焦出於胃上口 並咽以上 貫膈 而布胸中 … 中焦亦並胃中 出上焦之後 此所受氣者 泌糟粕 蒸津液 化其精微 上注於肺脈 乃化而爲血 以奉生身 莫貴於此 故獨得行於經隧 命曰營氣 … 下焦者 別廻腸 注於膀胱 而滲入焉 故水穀者 常幷居於胃中 成糟粕 而俱下於大腸而成下焦 滲而俱下 濟泌別汁 循下焦而滲入膀胱焉"

5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246. "黃帝曰 營衛之行奈何 伯高曰 穀始入於胃 其精微者 先出於胃之兩焦 以溉五臟 別出兩行 營衛之道 其大氣之搏而不行者 積於胸中 命曰氣海 出於肺 循喉咽 故呼則出 吸則入 天地之精氣 其大數常出三入一 故穀不入 半日則氣衰 一日則氣少矣"

56) 宋点植 撰. 醫學輯要. 서울. 曉林. 1994. p. 209.

57) 채인식, 권현덕, 변원구 譯. 漢方醫學用語大辭典. 서울. 癸丑文化社. 1990. p.377.

58)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p.65-66. "平人之常氣稟於胃 … 所謂無胃氣者 但得眞藏脈 不得胃氣也"

59)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31. "脈有陰陽 知陽者知陰 知陰者知陽 凡陽有五 五五二十五陽 所謂陰者 眞藏也 見則爲敗 敗必死也 所謂陽者 胃脘之陽也 別於陽者 知病處也 別於陰者 知死生之期"

60)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86. p.67. "無餘物和雜 故名眞也 五臟之氣 皆胃氣和之 不得獨用 如至剛不得獨用 獨用卽折 和柔用之卽固也"

61) 정현석, 박찬국. 脾者後天之本에 관한 考察(오행이론을 중심으로).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1999. 12(1). p.217.

어떻게 보관하는가? 남들 눈에 잘 띄게 내놓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반대로 항상 사용해야 하는 물건은 숨겨놓을 필요가 없다. 귀하고 소중한 것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잘 보관하듯이 인체의 내부 상태를 외부로 반영하는 脈象에서도 숨어 있어야 하는 脈이 있으니, 眞藏脈이 그러한 것이다. 眞藏脈은 반드시 胃氣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데, 胃氣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드러내서는 안 되는 眞藏脈이 드러나게 되어 곧 죽는 것이다."고 하여 眞藏은 胃氣에 의해 보호되어 드러나지 않아야 하는 귀하고 소중한 脈象이라고 하였다. 眞藏의 字意를 해석하는 관점은 다르지만, 두 의견 모두 眞藏은 胃氣와 조화를 이루면서 함부로 드러나서는 안 되는 脈象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 왜 胃氣가 없는 眞臟脈이 나타나면 死하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素問·玉機眞藏論』에 "五臟은 모두 胃에서 氣를 稟하니, 胃는 五臟의 本이다. 臟氣는 스스로 手太陰에 이르지 못하고서 반드시 胃氣에 因하여야 이에 手太陰에 이른다. 그러므로 五臟은 각각 그 時로써 스스로 작용하여 手太陰에 이른다."[62]고 하였으니, 胃氣가 아니라면 五臟氣가 缺하는 바가 생긴다는 말이다. 이는 『靈樞·根結』에서 "하루 낮밤에 五十營함으로써 五臟의 精을 營하는데 數를 應하지 않는 것을 名하길 '狂生'이라 한다. 이른바 五十營이라는 것은 五臟이 모두 氣를 받는 것으로, 그 脈口를 잡아서 그 至를 센다. 五十動이 一代가 아닌 것은 五臟이 모두 氣를 받은 것이고, 四十動이 一代인 것은 一臟의 氣가 없는 것이고, 三十動이 一代인 것은 二臟의 氣가 없는 것이고, 二十動이 一代인 것은 三臟의 氣가 없는 것이고, 十動이 一代인 것은 四臟의 氣가 없는 것이고, 十動도 채우지 못한 것이 一代인 것은 五臟의 氣가 없는 것이다."[63]고 한 내용과도 관련이 있다.

張景岳은 "脈에 胃氣가 없으면 즉 眞藏이라고 하는데, 脈에 眞藏이 나타나면 어찌하여 마땅히 죽는가? 대개 사람에게 있는 元氣는 先天으로부터 나오니 곧 天氣이고 精神之父가 되며, 사람에게 있는 胃氣는 後天으로부터 나오니 곧 地氣이고 血氣之母가 된다. 그것이 後天에 있더라도 반드시 先天에 根本하여 主持하게 되고, 先天에 있더라도 반드시 後天에 힘입어 滋養하게 되니, 本하는 바가 없으면 죽고 養하는 자가 없어도 또한 죽는다."[64]라고 하여, 胃氣가 없는 眞藏은 後天의 養하는 바가 없는 것이므로 죽는다고 하였다. 王氷은 "陰이라는 것은 眞藏을 말한다. … 대저 이와 같은 脈이 나타나는 것은 모두 藏이 敗하여 神이 떠난 것이다."[65]라고 하여 眞藏은 神이 떠난 것이라고 하였는데, 『醫學入門』에서 "胃氣가 있는 脈은 힘이 있고 神이 있지만, 胃氣가 없는 脈은 힘이 없고 神이 없으니, 神이 곧 胃氣이다."[66]라고 한 내용도 이와 通한다.

五臟 각각의 眞臟脈에 대하여 『素問·玉機眞藏論』에 "眞肝脈이 이르면 中外가 急하여 마치 칼날을 어루만지는 것과 같이 責責然하고 琴瑟의 弦을 누르는 것 같고, … 眞心脈이 이르면 堅하면서 搏하여 마치 薏苡子를 어루만지는 것과 같이 累累然하고, … 眞肺脈이 이르면 大하면서 虛하여 마치 털깃으로 사람의 피부를 쓰다듬는 것과 같고, … 眞腎脈이 이르면 搏하면서 絶하여 마치 손가락으로 바위를 튕기는 것과 같이 辟辟然하고, … 眞脾脈이 이르면 弱하면서 잠깐 數하다가 잠깐 疏하다가 한다. … 모든 眞臟脈이 드러나는 것은 모두 死不治이다."[67]고

62)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75. "五藏者 皆稟氣於胃 胃者五臟之本也 臟氣者不能自致於手太陰 必因於胃氣 乃至於手太陰也 故五臟各以其時 自爲而至於手太陰也"

63)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p.50-51. "所謂五十營者 五藏皆受氣 持其脈口數其至也 五十動而不一代者 五藏皆受氣 四十動一代者 一藏無氣 三十動一代者 二藏無氣 二十動一代者 三藏無氣 十動一代者 四藏無氣"

64) 안영민. 景岳全書 傳忠錄·脈神章·傷寒典. 서울. 도서출판 한미의학. 2006. pp.204-205. "若脈無胃氣 卽名眞藏 脈見眞藏 何以當死 蓋人有元氣 出自先天 卽天氣也 爲精神之父 人有胃氣 出乎後天 卽地氣也 爲血氣之母 其在後天 必本先天爲主持 在先天 必賴後天爲滋養無所本者死 無所養者亦死"

65) 윤창열, 이남구, 김선호. 懸吐 完譯 黃帝內經素問 王冰注(上). 대전. 주민출판사. 2003. pp.166-167. "陰者眞藏也 然見者 … 夫如是脈見者 皆爲藏敗神去"

66) 李梴. 編註醫學入門.1. 연합의서. 서울. 1992. p.425. "有胃氣則脈 有力有神 無胃氣則脈 無力無神 神卽胃氣也"

67)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p.74-75. "眞肝脈至 中外急 如循刀刃責責然 如按琴瑟弦 … 眞心脈至 堅而搏 如循薏苡子累累然 … 眞肺脈至 大而虛 如以毛羽中人膚 … 眞腎脈至 搏而絶 如指彈石辟辟然 … 眞脾脈至 弱而乍數乍疎 … 諸眞藏脈見者 皆死不治也"

하여 胃氣가 없는 眞藏脈의 象들을 설명하고 모두 死不治하다고 하였는데, 표현된 脈象들이 조화로운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2) 胃氣가 있는 脈象

『素問 · 脈要精微論』에서는 五臟의 脈이 堅而長하거나 軟而散하고 色의 변화가 있을 때 나타나는 病을 말하면서 肝脈 · 心脈 · 脾脈 · 肺脈 · 腎脈과 함께 胃脈만을 거론하였고[68], 『黃帝內經』의 여러 篇들, 특히 眞臟과 관련된 篇들에서는 항상 胃氣가 五臟脈과 조화를 이루어 나타나야함을 강조하였는데, 과연 胃氣가 있는 脈이란 어떤 象일까?

『素問 · 玉機眞藏論』에 "脈이 弱以滑하면 이는 胃氣가 있는 것"[69]이라고 하였고, 『靈樞·終始』에서는 "邪氣가 오면 緊而疾하고 穀氣가 오면 徐而和하다."[70]고 하였다. 또한 李梴과 李中梓는 "반드시 脈에 胃氣가 있어야 害가 없다. 胃氣는 中氣이다. 大하지도 않고, 細하지도 않고, 長하지도 않고, 短하지도 않고, 浮하지도 않고, 沈하지도 않고, 滑하지도 않고, 濇하지도 않으며, 손에 應하는 것이 中和되어 있어 흡족한 생각이 드는, 이름짓기 어려운 狀이 이것이다."[71][72]고 하였으며, 張景岳은 "穀氣는 즉 胃氣이며 胃氣는 즉 元氣임을 알 수 있다. 元氣가 올 때는 힘이 和而緩하고 邪氣가 이를 때는 힘이 强而峻하다. 高陽生이 '봄의 버드나무같이 부드러우면 이는 脾家脈이 四季를 바로잡고 있음이다.'고 말하였으니 곧 胃氣를 말함이다."[73]고 하여, 부드러우면서도 조화되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胃氣의 象이라고 하였다.

3. 胃氣와 眞藏의 의의

1) 平 · 病 · 死脈을 구분하는 기준

사람은 天地自然에 應하는 존재이므로 四時의 변화에 따라 人體의 脈象에 차이가 있으며, 五臟의 각 특성에 따라서도 脈象은 다르게 나타난다. 『素問 · 玉機眞藏論』에 "春脈은 弦과 같고, 夏脈은 鉤와 같고, 秋脈은 浮와 같고, 冬脈은 營과 같고, 脾脈이라는 것은 土다. 孤藏이 四傍을 물대준다."[74]라 하였고, 『素問 · 宣明五氣』에서 "五脈은 象에 應한다. 肝脈은 弦하고, 心脈은 鉤하고, 脾脈은 代하고, 肺脈은 毛하고, 腎脈은 石하는데 이를 이르러 五臟의 脈이라 한다."[75]라 한 것들이 바로 그러함이다. 그런데 平人의 常氣는 胃에서 품하고 胃는 平人의 常氣이므로, 脈에 胃氣가 없이 眞臟脈만 나타나는 것은 肝이 弦하지 않고 腎이 石하지 않음을 말한다.[76] 즉 胃氣가 없는 脈은 정상적인 肝의 弦脈도 腎의 石脈도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素問 · 平人氣象論』에 "春에는 胃가 있으면서 微弦한 것은 平이라 하고, 弦이 많고 胃가 적은 것은 肝病이라 하고, 다만 弦하기만 하고 胃가 없는 것은 死라 하고, 胃가 있지만 毛가 있는 것은 秋病이라 하고, 毛가 甚한 것은 今病이라 한다. … 夏에는 胃가 있으면서 微鉤한 것은 平이라 하고, 鉤가 많고 胃가

68)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58. "心脈搏堅而長 當病舌卷不能言 其軟而散者 當消環自已 肺脈搏堅而長 當病唾血 其軟而散者 當病灌汗至今不復散發也 肝脈搏堅而長 色不靑 當病墜若搏 因血在脅下 令人喘逆 其軟而散色澤者 當病溢飮 溢飮者 渴暴多飮而易入肌皮腸胃之外也 胃脈搏堅而長 其色赤 當病折髀 其軟而散者 當病食痺 脾脈搏堅而長 其色黃 當病少氣 其軟而散色不澤者 當病足骭腫 若水狀也 腎脈搏堅而長 其色黃而赤者 當病折腰 其軟而散者 當病少血 至今不復也"

69)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75. "脈弱以滑 是有胃氣 命曰易治"

70)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72. "邪氣來也緊而疾 穀氣來也 徐而和"

71) 李梴. 編註醫學入門.1. 연합의서. 서울. 1992. p.425. "必脉有胃氣 無害 胃氣者 中氣也 不大不細不長不短不浮不沈不滑不濇 應手中和 意思欣欣 難以名狀者是也"

72) 包來發 主編. 李中梓醫學全書·診家正眼.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393. "蔡氏曰 不大不小 不長不短 不滑不澀 不浮不沉 不疾不遲 應手中和 意思欣欣 難以名狀者 胃氣脉也"

73) 안영민. 景岳全書 傳忠錄·脈神章·傷寒典. 서울. 도서출판 한미의학. 2006. p.204. "是可見穀氣卽胃氣 胃氣卽元氣也 夫元氣之來 力和而緩 邪氣之至 力强而峻 高陽生曰 阿阿軟若春楊柳 此是脾家脈四季 卽胃氣之謂也"

74)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p.72-73. "春脈如弦 夏脈如鉤 秋脈如浮 冬脈如營 脾脈者土也 孤藏以灌四傍者也"

75)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92. "五脈應象 肝脈弦 心脈鉤 脾脈代 肺脈毛 腎脈石 是謂五臟之脈"

76)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66. "所謂無胃氣者 但得眞臟脈 不得胃氣也 所謂脈不得胃氣者 肝不弦 腎不石也"

적은 것은 心病이라 하고, 다만 鉤하기만 하고 胃가 없는 것은 死라 하고, 胃가 있지만 石이 있는 것은 冬病이라 하고, 石이 甚한 것은 今病이라 한다. … 長夏에는 胃가 있고 微軟弱한 것은 平이라 하고, 弱이 많고 胃가 적은 것은 脾病이라 하고, 다만 代하기만 하고 胃가 없는 것은 死라하고, 軟弱하면서 石이 있는 것은 冬病이라 하고, 弱이 甚한 것은 今病이라 한다. … 秋에는 胃가 있으면서 微毛한 것은 平이라 하고, 毛가 많고 胃가 적은 것은 肺病이라 하고, 다만 毛하기만 하고 胃가 없는 것은 死라 하고, 毛하면서 弦이 있는 것은 春病이라 하고, 弦이 甚한 것은 今病이라 한다. … 冬에는 胃가 있으면서 微石한 것은 平이라 하고, 石이 많고 胃가 적은 것은 腎病이라 하고, 다만 石하기만하고 胃가 없는 것은 死라 하고, 石하면서 鉤가 있는 것은 夏病이라 하고, 鉤가 甚한 것은 今病이라 한다."[77]고 하여 胃가 있으면서 각각의 계절맥이 나타나는 것이 平이고, 胃가 적거나 없는 것은 病·死이고, 克하는 계절맥이 나타나는 것도 또한 病이라고 하였다. 平은 胃가 있으면서 약간 계절맥이 있는 것이라 한 것에 대하여 楊上善은 "나타나는 것이 만일 弦하면 이는 肝脈인데, 微弦이 平好가 된다. 微弦은 弦이 적은 것이니 3분의 1은 微한 것이고 3분의 2는 胃氣이다. 만일 3분의 1이 弦氣라면 함께 動하는 것이니 微弦이 되고, 3분의 3 모두가 弦氣라면 결국 胃氣는 없는 것이므로 見眞藏이 된다."[78]고 하여, 微弦은 胃가 전체의 2/3이고 弦이 1/3이라면서 微라는 애매모호한 정도를 비율로 표현하였다.

五臟脈과 胃의 관계에 대하여, 『素問·平人氣象論』에 "平心脈이 올 때에는 동글동글하여 마치 구슬이 연결된 것 같고 마치 玉을 만지는 것과 같으니, 心平이라 한다. 夏에는 胃氣로써 本을 삼는다. 病心脈이 올 때에는 急數함이 연속되고 그 중에 약간 굽은 것이 있으니, 心病이라 한다. 死心脈이 올 때에는 앞과 뒤가 굽어서 마치 허리띠 고리를 만지는 것과 같으니, 心死라고 한다. 平肺脈이 올 때에는 가볍고 澀하여 마치 楡莢이 떨어지는 것과 같으니, 肺平이라 한다. 秋에는 胃氣로써 本을 삼는다. 病肺脈이 올 때에는 위도 없고 아래도 없어서 마치 닭의 깃을 만지는 것과 같으니, 肺病이라 한다. 死肺脈이 올 때에는 마치 물건이 떠 있는 것 같고, 바람이 털을 날리는 것 같으니, 肺死라고 한다. 平肝脈이 올 때에는 연약하고 招招하여 마치 긴 장대의 끝과 같으니, 肝平이라 한다. 春에는 胃氣로써 本을 삼는다. 病肝脈이 올 때에는 充實하고 滑하여 마치 장대를 만지는 것과 같으니, 肝病이라 한다. 死肝脈이 올 때에는 急數하면서 勁하여 마치 막 당긴 활시위와 같으니, 肝死라고 한다. 平脾脈이 올 때에는 부드럽게 서로 떨어져서 마치 닭이 땅을 밟는 것과 같으니, 脾平이라 한다. 長夏에는 胃氣로써 本을 삼는다. 病脾脈이 올 때에는 實하면서 急數하여 마치 닭이 발을 드는 것과 같으니, 脾病이라 한다. 死脾脈이 올 때에는 銳堅하여 마치 새의 부리와 같고, 새의 발톱과 같고, 지붕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 같고, 물이 흐르는 것 같으니, 脾死라고 한다. 平腎脈이 올 때에는 연속적으로 동글동글하면서 고리와 같이 굽고, 누르면 견고하니, 腎平이라 한다. 冬에는 胃氣로써 本을 삼는다. 病腎脈이 올 때에는 칡뿌리를 당기는 것과 같고 누르면 더욱 견고하니, 腎病이라 한다. 死腎脈이 올 때에는 풀어진 동아줄과 같이 發하고, 단단하기가 彈石과 같으니, 腎死라고 한다."[79]고 하여 脈으로

77)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65. "春胃微弦曰平 弦多胃少曰肝病 但弦无胃曰死 胃而有毛曰秋病 毛甚曰今病 … 夏胃微鉤曰平 鉤多胃少曰心病 但鉤无胃曰死 胃而有石曰冬病 石甚曰今病 … 長夏胃微耎弱曰平 弱多胃少曰脾病 但代无胃曰死 耎弱有石曰冬病 弱甚曰今病 … 秋胃微毛曰平 毛多胃少曰肺病 但毛无胃曰死 毛而有弦曰春病 弦甚曰今病 … 胃微石曰平 石多胃少曰腎病 但石无胃曰死 石而有鉤曰夏病 鉤甚曰今病"

78)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86. pp.68. "見者如弦 是肝脈也 微弦爲平好也 微弦爲弦之少也 三分有一分爲微 二分胃氣 如一分弦氣俱動 爲微弦也 三分並是弦氣 竟無胃氣 爲見眞藏也"

79)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 出版部. 1985. p.66. "平心脈來 累累如連珠 如循琅玕 曰心平 … 病心脈來 喘喘連屬 其中微曲 曰心病 死心脈來 前曲後居 如操帶鉤 曰心死 平肺脈來 厭厭聶聶 如落楡莢 曰肺平 … 病肺脈來 不上不下 如循雞羽 曰肺病 死肺脈來 如物之浮 如風吹毛 曰肺死 平肝脈來 耎弱招招 如揭長竿末梢 曰肝平 … 病肝脈來 盈實而滑 如循長竿 曰肝病 死肝脈來 急益勁 如新張弓弦 曰肝死 平脾脈來 和柔相離 如雞踐地 曰脾平 … 病脾脈來 實而盈數 如雞擧足 曰脾病 死脾脈來 銳堅如烏之喙 如鳥之距 如屋之漏 如水之流 曰脾死 平腎脈來 喘喘累累如鉤 按之而堅 曰腎平 … 病腎脈來 如引葛 按之益堅 曰腎病 死腎脈來 發如奪索 辟辟如彈石 曰腎死"

平·病·死를 구분하고 각 계절 모두 胃氣로써 根本을 삼는다고 하였다.

「平人氣象論」의 앞부분에서는 四時의 脈象과 胃의 관계로써 五臟의 平·病·死를 말하였고, 뒷부분에서는 五臟의 平·病·死脈의 象을 비유를 통하여 표현하였는데 여기서도 계절마다 胃氣로써 本을 삼는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四時脈과 五臟脈은 胃氣와 조화를 이루어야 만이 平하게 되며, 그렇지 않으면 病이 되거나 심하면 死하게 되므로, 胃氣는 平·病·死脈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위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四時에 따른 五臟의 平·病·死脈 비교

時	臟	平	病		死
春	肝	春胃微弦	弦多胃少	胃而有毛曰秋病 毛甚曰今病	但弦无胃
		耎弱招招 如揭長竿末梢	盈實而滑 如循長竿		急益勁 如新張弓弦
夏	心	夏胃微鉤	鉤多胃少	胃而有石曰冬病 石甚曰今病	但鉤无胃
		累累如連珠 如循琅玕	喘喘連屬 其中微曲		前曲後居 如操帶鉤
長夏	脾	長夏胃微耎弱	弱多胃少	耎弱有石曰冬病 弱甚曰今病	但代无胃
		和柔相離 如雞踐地	實而盈數 如雞擧足		銳堅如烏之喙 如鳥之距 如屋之漏 如水之流
秋	肺	秋胃微毛	毛多胃少	毛而有弦曰春病 弦甚曰今病	但毛无胃
		厭厭聶聶 如落楡莢	不上不下 如循雞羽		如物之浮 如風吹毛
冬	腎	冬胃微石	石多胃少	石而有鉤曰夏病 鉤甚曰今病	但石无胃
		喘喘累累如鉤 按之而堅	如引葛 按之益堅		發如奪索 辟辟如彈石

2) 死의 예후 판단

診脈을 했을 때 眞臟脈이 나타나는 것은 死의 징후다. 『素問·玉機眞藏論』에 "胃氣가 臟氣와 더불어서 함께 手太陰에 이르지 못하므로 眞臟의 氣만이 홀로 나타나는데, 홀로 나타나는 것은 病이 臟을 勝한 것이므로 죽는다."[80]고 하였고, 『素問·三部九候論』에서 "眞臟脈이 나타나는 것은 勝한 것으로 죽는다."[81]고 하였고, 『素問·陰陽別論』에 "이른바 陰이라는 것은 眞臟인데, 나타나면 敗하게 되고 敗하면 반드시 死한다."[82]고 하여, 胃氣가 없이 眞臟만 나타나면 죽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素問·玉機眞藏論』에서는 '眞肝脈至', '眞心脈至' 등의 脈象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脈이 나타나고, 色이 不澤하면서 毛가 折하면 이에 죽는다[83]고 하였다. 眞臟脈이 나타나는 것은 이미 胃氣가 五臟氣와 떨어진 것으로 결국 죽게 되며, 眞臟脈과 함께 나타나는 좋지 않은 징후들은 몸이 어떠한 상황에 도래했는지를 보여준다.

그런데, 死의 징후인 眞臟脈은 각 臟의 眞臟, 나타나는 신체 증후, 해당 干支에 따라서 기약하는 죽는 시기가 다르다. 『素問·陰陽別論』에서는 "무릇 眞脈의 藏脈이 나타나는 경우에 肝이 至하는 것이 懸絶急하면 18日에 死하고, 心이 至하는 것이 懸絶하면 9日에 死하고, 肺가 至하는 것이 懸絶하면 12日에 死하고, 腎이 至하는 것이 懸絶하면 7日에 死하고, 脾가 至하는 것이 懸絶하면 4日에 死한다."[84]고 하였고, 『素問·平人氣象論』에서 "肝脈이 나타나면 庚辛에 죽고, 心脈이 나타나면 壬癸에 죽고, 脾脈이 나타나면 甲乙에 죽고, 肺脈이 나타나면 丙丁에 죽고, 腎脈이 나타나면 戊己에 죽으니, 이는 眞臟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 것으로 모두 죽는다."[85]고 하였다. 『素問·玉機眞藏論』에는 "大骨이 삐쩍 마르고, 大肉이 움푹 꺼지고, 胸中氣가 滿하고, 喘하여 息이 不便하고, 그 氣가 動하는 形이면 6달 만에 죽는 것을 기약할 수 있으니,

80)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75. "胃氣不能與之俱至於手太陰 故眞臟之氣獨見 獨見者 病勝臟也 故曰死"

81)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82. "眞藏脈見者 勝死"

82)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31. "所謂陰者 眞藏也 見則爲敗 敗必死也"

83)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p.74-75. "眞肝脈至 中外急 如循刀刃責責然 如按琴瑟弦 色靑白不澤 毛折 乃死 眞心脈至 堅而搏 如循薏苡子累累然 色赤黑不澤 毛折 乃死 眞肺脈至 大而虛 如以毛羽中人膚 色白赤不澤 毛折 乃死 眞腎脈至 搏而絶 如指彈石辟辟然 色黑黃不澤 毛折 乃死 眞脾脈至 弱而乍數乍踈 色黃靑不澤 毛折 乃死 諸眞臟脈見者 皆死不治也"

84)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31. "凡持眞脈之藏脈者 肝至懸絶急 十八日死 心至懸絶 九日死 肺至懸絶 十二日死 腎至懸絶 七日死 脾至懸絶 四日死"

85)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66. "肝見庚辛死 心見壬癸死 脾見甲乙死 肺見丙丁死 腎見戊己死 是謂眞臟見 皆死"

眞臟이 나타남으로 그 기약되는 날을 예측한다. 大骨이 삐쩍 마르고, 大肉이 움푹 꺼지고, 胸中氣가 滿하고, 喘하여 息이 不便하고, 內로 肩項이 당기면서 아프면 1달 만에 죽는 것을 기약할 수 있으니, 眞臟이 나타남으로 그 기약되는 날을 예측한다. 大骨이 삐쩍 마르고, 大肉이 움푹 꺼지고, 胸中氣가 滿하고, 喘하여 息이 不便하고, 內로 肩項이 당기면서 아프고, 몸에 熱이 나고 肉을 脫하고 胭을 破하면서 眞臟이 나타나면 10달 내에 죽는다. 大骨이 삐쩍 마르고, 大肉이 움푹 꺼지고, 肩髆內가 消하고, 動作이 더욱 衰해지고, 眞臟이 나타나면 1년 만에 죽는 것을 기약할 수 있으니, 그 眞臟을 보고서 그 기약되는 날을 예측한다. 大骨이 삐쩍 마르고, 大肉이 움푹 꺼지고, 胸中氣가 滿하고, 腹內가 痛하고, 心中이 不便하고, 肩·項·身이 熱하고, 胭을 破하고 肉을 脫하고, 目匡이 陷하고, 眞臟이 나타나고, 눈으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면, 死에 立한 것이니, 그러함을 나타내는 사람인 경우에 그 所不勝의 때인즉 죽는다."[86]고 하여, 예후가 좋지 않은 증상인데다가 眞藏脈까지 나타나는 것으로 죽는 시기를 정한다고 하였는데, 王氷은 각 증상에 五臟의 眞藏을 배치하기도 하였지만 「玉氣眞藏論」의 내용만을 보았을 때는 어느 臟의 眞藏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陰陽別論」, 「平人氣象論」, 「玉機眞藏論」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 2, 표 3과 같다.

표 2. 眞藏脈을 통한 死의 時期 예측

	陰陽別論	平人氣象論
肝	肝至懸絶急 18日死	肝見庚辛死
心	心至懸絶 9日死	心見壬癸死
脾	脾至懸絶 4日死	脾見甲乙死
肺	肺至懸絶 12日死	肺見丙丁死
腎	腎至懸絶 7日死	腎見戊己死

86)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74. "大骨枯槁 大肉陷下 胸中氣滿 喘息不便 其氣動形 期六月死 眞藏脈見 乃予之期日 大骨枯槁 大肉陷下 胸中氣滿 喘息不便 內痛引肩項 期一月死 眞藏見 乃予之期日 大骨枯槁 大肉陷下 胸中氣滿 喘息不便 內痛引肩項 身熱脫肉破胭 眞藏見 十月之內死 大骨枯槁 大肉陷下 肩髆內消 動作益衰 眞藏來見 期一歲死 見其眞藏 乃予之期日 大骨枯槁 大肉陷下 胸中氣滿 腹內痛 心中不便 肩項身熱 破胭脫肉 目匡陷 眞藏見 目不見人 立死 其見人者 至其所不勝之時則死"

표 3. 症狀과 眞藏에 의한 死期 판단

症狀		死期	
共證	各證		
大骨枯槁 大肉陷下	胸中氣滿 喘息不便 其氣動形	期六月死 眞藏脈見 乃予之期日	
	胸中氣滿 喘息不便 內痛引肩項	期一月死 眞藏見 乃予之期日	
	胸中氣滿 喘息不便 內痛引肩項 身熱脫肉破胭	眞藏見 十月之內死	
	肩髆內消 動作益衰	眞藏來見 期一歲死 見其眞藏 乃予之期日	
	胸中氣滿 腹內痛 心中不便 肩項身熱 破胭脫肉 目匡陷	眞藏見	目不見人 立死
			其見人者 至其所不勝之時則死

Ⅲ. 결 론

『黃帝內經』을 중심으로 胃의 생리특성 및 胃氣와 眞臟脈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사람은 水穀의 精微로부터 생성된 氣로써 삶을 영위하므로, 生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水穀의 섭취가 반드시 필요하다. 胃는 水穀을 받아들였다가 소화과정을 거치면서 인체의 필요한 곳으로 水穀의 精微를 전달하고, 각 臟腑로 영양을 공급하여 삶의 활동을 지속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胃의 특성 때문에 胃는 단순히 六腑 중의 하나가 아니라 六腑를 대표이고, 五行 중에서 土의 작용과 관련하여 足陽明이라 하고, 三焦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받아들였다가 필요한 곳으로 다시 보내는 창고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倉廩이라고도 하고, 五臟六腑의 根本이라고도 한다. 胃는 水穀을 근간으로 하는 後天之氣를 기르는 중요한 기관이며, 소화과정을 거쳐서 인체에 필요한 형태로 변화한 胃氣는 생명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바탕이 된다.

인체에서 胃氣가 行하는 모습은 脈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인체가 건강하다는 것은 脈에 胃氣가 있고 胃氣와 五臟의 氣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胃氣가 없이 五臟 본연의 眞藏이 드러나는 것은 逆이니 死를 기약하게 된다. 『黃帝內經』에서는 胃氣가 없이 眞藏만 나타나는 것으로 死의 예후를 알 수 있고, 五臟은 모두 胃에서 氣를 받으니 胃는

五臟의 근본이 되며, 臟氣는 스스로 手太陰에 이르지 못하고 반드시 胃氣에 因하여야 하기 때문에 眞藏만 나타나면 죽는다고 하였다.『素問·平人氣象論』에서는 春夏秋冬에 胃氣가 있으면서 微弦·微鉤·微毛·微石해야 平이고, 弦·鉤·毛·石이 多하고 胃가 少하면 病이고, 胃가 없으면 죽으며, 五臟의 平脈이 나타나는 때에도 胃氣는 四時의 本이 된다고 하여, 四時·五臟脈·胃氣가 상응하여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平이 됨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水穀을 바탕으로 하는 胃氣가 근본이 되며, 胃氣는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에도 기준이 된다.

참고문헌

<논문>

1. 이혜연.『黃帝內經』의 脈에 대한 연구 -四時脈, 寸口人迎脈, 眞臟脈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p.87.
2. 鄭鉉錫, 朴贊國. 脾者後天之本에 관한 考察(오행이론을 중심으로).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1999. 12(1). p.216, 217.

<단행본>

1.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23, 31, 34, 36, 37, 42, 58, 65, 66, 72, 73, 74, 75, 82, 86, 92, 112, 163, 176, 305.
2.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 靈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21, 50, 51, 72, 79, 99, 100, 113, 119, 120, 165, 172, 174, 236, 246, 261, 267, 270, 298.
3. 전국한의과대학 생리학 교수 편저. 東醫生理學. 서울. 集文堂. 2008. p. 140, 188, 189.
4. 宋点植 撰. 醫學輯要. 서울. 曉林. 1994. p.113, 197, 208, 209, 210.
5. 李梴. 編註醫學入門.1. 연합의서. 서울. 1992. p.330, 425.
6. 莊周. 莊子. 서울. 연암서가. 2010. p.520.
7. 許浚. 神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7. p.245.
8. 채인식, 권현덕, 변원구 譯. 漢方醫學用語大辭典. 서울. 癸丑文化社. 1990. p.377.
9.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86. p.67, 68.
10. 안영민. 景岳全書 傳忠錄·脈神章·傷寒典. 서울. 도서출판 한미의학. 2006. p.204, 205.
11. 윤창열, 이남구, 김선호. 懸吐 完譯 黃帝內經素問 王冰注(上). 대전. 주민출판사. 2003. p.166, 167.
12. 包來發 主編. 李中梓醫學全書·診家正眼.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393.